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http://unibook.unikorea.go.kr>



www.unikorea.go.kr

UM00003772

U
03-09-33
이2330
c.2

00년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은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I. 평화번영정책의 제시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합니다.

- ▶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 ▶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추구

평화번영정책은 4가지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됩니다.

-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평화번영정책은 남북 및 동북아 관계의 심화·발전을
지향하는 한단계 진전된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 ▶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 천명
- ▶ 남북교류협력의 목표 제시
- ▶ 평화번영의 동북아시아 주도 천명
- ▶ 기존 대북정책의 계승 발전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II.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 첫째, 북한핵 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시도도 불용
- ▶ 둘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 셋째,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해결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 왔습니다.

- ▶ 남북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대화통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 ▶ 한·미(5.15), 한·일(6.8), 한·중(7.7)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6자회담이 열렸습니다.

- ▶ 그간 정부의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과 외교노력의 결과로 남·북·미·일·중·러가 참가하는 6자 회담 개최(8.27~29, 북경)
—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용한 통로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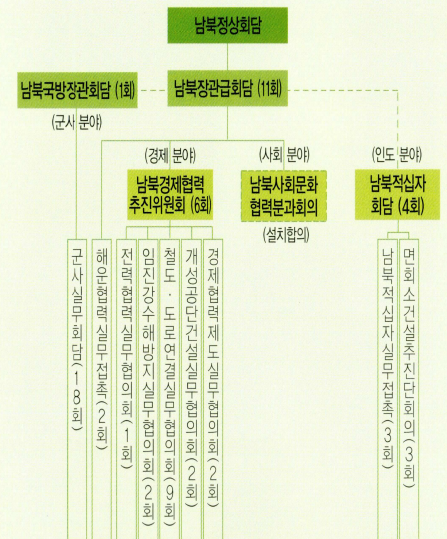


북한 핵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갈래의 남북대화를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III. 남북대화의 지속 추진

다양한 분야의 남북대화가 제도화·정례화되고 있습니다.



* 회담 개최 횟수는 누계치이며 실무협의회는 실무협력을 포함한 수회임

새로운 회담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 각종 남북대화에서 상호존중에 기초한 「원칙과 신뢰」를 강조
- ▶ 회담행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성-문신간 「출퇴근 회담」도 진행

남북간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발전되고 있습니다.

IV.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남북간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 ▶ 남북을 잇는 철도(경의선, 동해선)의 궤도연결식 개최(6.14)
 - 신호통신·전력계통 연결 및 열차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실제 개통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조성공사 착공식 개최(6.30)
 -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총 2,000만평 규모)



금강산 육로관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 ▶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9.1)
 - 앞으로 특구개발이 본격화되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관광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
- *1998.11.18~2003년 9월말 현재
총 54만 여명 관광



4개 경제협력합의서가 발효되었습니다.

- ▶ 이종과세방지, 청산결제,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 등에 관한 4개 합의서 발효(8.20)

사회문화교류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 ▶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공연 실시(8.11)
-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527명)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을 돕고,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일은
동포애와 민족회합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V.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

북한동포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고 있습니다.

- ▶ 비료는 20만톤, 식량은 40만톤(차관방식) 지원
 - 북한은 '90년대 이후 매년 200만여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
- ▶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을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사업에도 참여
- ▶ 민간차원에서도 농업개발·보건의료 등 다양한 지원활동 전개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시(9. 20 ~ 25, 금강산)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8회에 걸쳐 총 8,051명 상봉
- ▶ 이산가족교류의 정례화·제도화를 위해 면회소 건설 추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이 되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통일포럼」 개최

통일부장관이 매월 국민들을 찾아가 남북관계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 서울 5회, 지방 6회(대전, 대구, 부산, 제주, 울산, 광주) 등 총 11회 개최

▷ 온라인으로는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참여마당)를 통해 「열린통일포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부산아시아 게임, 금강산 관광,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통하여 통일의 문은 조금씩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북한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와야 합니다.」(ID : alsigu0906)

「경협의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 이윤 추구와 공동의 이익 달성을 위하여는 남북이 협력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ID : g-hskim)

「지금 당장이야 통일을 할 수 없겠지만 상호교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ID : enekd)

「“북한 어린이돕기 날”을 정하여, 돕자는 의미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길 기원하는 뜻에서도 성금을 모았으면 합니다.」(ID : jennypin)

참여정부 대북정책 추진 일정

3.1-2	3.1절 민족공동행사복속 106명 서울 방문 / 서울
3.3-5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제2차 회의 / 금강산
3.10-12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개성
3.11-15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대표단 방문 (27명) / 평양
3.20-22	경의선 자재·장비 사용현장 방문 / 개성
3.21~24	「굿네이버스」 대북지원 분배 확인 방북(100명) / 평양 등
3.24-26	동해선 자재·장비 사용현장 방문 / 고성
3.26-27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방북(48명) / 평양
4.27-29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 평양
5.19-2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 평양
5.29	비료 (20만톤) 첫 항차(15,000톤) 출항
6.4	남북군사실무접촉 / 판문점
6.7-9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개성
6.14	남북 철도레노 연결행사 / 군사분계선
6.16-25	철도·도로 장비 수리정비 기술지원 / 동해선
6.20	동해선 통신선 연결 군사실무접촉 / 동해선
6.27-7.2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899명) / 금강산
6.27-7.6	철도·도로 장비 수리정비 기술지원 / 경의선
6.30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착공식 / 개성
7.2-4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문산
	
7.3	식량차관(40만톤) 첫 항차(3,000톤) 출항
7.4-6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 금강산
7.7-9	통일민족평화체육문화축전 1차 실무접촉 / 금강산
7.9-12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 서울
7.15-17	경의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현장조사(7명) / 경의선

7.21-8.8 개성공단 측량·토질조사단 방북(29명) / 개성

7.22-24 동해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현장조사(7명) / 동해선

7.28-31 「굿네이버스」 대북지원 분배 확인 방북(102명) / 평양 등

7.29-31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 개성

7.29-8.2 「전교조」 교사 견학단 직항로 방북(130명) / 평양

8.11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 공연 / 평양



8.14-17 8.15 남북공동행사 (330명 직항로 방북) / 평양

8.18-26 국호영문표기문제 남북학술토론회(57명 방북) / 평양

8.20 4개 경제협력 합의를 발표

8.20-9.1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527명) / 대구

8.21-22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개성

8.21-23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제3차 회의 / 금강산

8.25-30 제주도민 직항로 방북(256명) / 평양 등

8.25 중소기업인 등 개성공단 방문(224명) / 개성

8.26-2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 서울

9.1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 금강산

9.15 「평화행공여행사」 평양관광 개시(114명 방북) / 평양 등

9.16-2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지원 분배 확인 방북(110명) / 평양 등

9.17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판문점



9.20-27 남북공동학술회의(17명 방북) / 평양

9.20-25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942명) / 금강산